



가을 · 겨울의 보약은 녹용대보탕

인간은 精·氣·神·血이 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기전 모태속에서 열달동안 성장한다. 정충과 난자가 수정 결합하여 어머니 태속에서 정기 신혈등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어 있으면 태어나서도 건강하고, 비정상적이었을때는 태어나서도 정기나 신혈이 부족하거나 허약해서 항상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인체의 정기 신혈에 음양 조화가 정상 조화일때는 질병이 없이 건강하고, 부조화가 극심 할때는 질병이 생기거나 병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생체조절 반응 물질이나 면역능력이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아무리 좋은 명약과 영약을 사용해도 질병치료가 잘 안되는 것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AIDS가 대표적인 예이다. 저항력과 면역능력이 항상 좋은 사람은 면역결핍증과 저항능력 부족으로 인한 질환에 걸리지도 않고, 감염되었



임 덕 성

임 덕성 한의원 원장

다해도 치료가 잘 되는 것이다.

“인삼탕은 한방의학의 처방이다. AIDS 같은 질환에 人蔘湯이 효과가 있다”라고 동경대의대 임상병리과에서 발표되었다. 인삼탕을 평상시에 다려서 찻물처럼 마신 사람은 AIDS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치료가 될 수 있으며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인삼중에서도 고려인삼인 한

국산이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인삼에는 ①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려인삼 ② 일본에서 생산되는 죽절인삼 ③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철인삼(삼칠인삼) ④ 미국·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북미인삼, 화기삼등이 있다.

한방의학의 임상치료 처방과 약용으로는 한국산 고려인삼인 백삼, 홍삼만을 한방 보약으로 사용한다.

일본 동경 TV에서 오대산 산삼 취재중에 산삼밭(마당심)을 발견했다고 하는 신문, 방송 보도가 나가자 천연산삼이 자생하느냐? 또는 인삼 씨앗을 산에 뿌려 놓은 것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 시중은 물론 전국에서 화제였다. 또 일본의 共同통신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느냐? 일본 동경 TV팀에도 있느냐? 하는 취재 전화가 필자 한의원에 쇄도하였다.

소유권은 한국의 취재 협조팀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 수억대의 한국산 천연(천종) 고려산삼이 일본에 화제가 되었는가하면 멸종된 자기나라 산삼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천연삼인 산삼은 멸종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멸종되지 않고, 천연적으로 자생하는 한국산 천연 고려산삼을 발로 취재해서 영상으로 실물을 방영함으로써 건강에 관한 화제가 되었던 것이다. 인삼은 보통 4년에서 6년근만을 한방에서 건강식품으로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수십년에서 수백년이 되었다고 하는데다가 연조의 눈이 수백개 되는 것이 있으니가 더욱 놀란 것이다.

인삼이나 산삼은 오래 묵을수록 더욱 효과적이다. 암, 당뇨병, 중풍, 간경화, 심장병, 위장병 등에 특효가 있고,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신비의 영약, 신초라고 한다. 산삼을 어려서 먹으면 평생동안 건강한 사람이 된다.

산삼을 어려서 못 복용하면 인삼을 人蔘膏나 독삼탕을 만들어서 복용하면 매우 좋을 것이다.

노화방지 보약은 젓과 우유죽이다. 한방의서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으로써 母乳가 어린이에게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젓 말고, 다른 젓은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한다.

병이 없는 건강한 부인의 유즙액 두잔을 좋은 청주 반잔에 타서 은그릇이나 돌그릇에 넣고 따뜻하게 매일 밤중에 한홉씩 먹으면 노인병과 허약인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우유죽은 노화방지약으로 우유 1되에 細米心 즉 쌀겨기

를 조금 넣어서 죽을 쑤어서 먹으면 노인의 보양에 좋다.

인체의 精이 부족하면 음식물로서 보충한다. 精은 곡식에서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양기가 허약하여 교합전에 먼저 배설하고(射精) 꿈에도 배설하는데는 신호한 처방이 있다.

감실환(坎實丸)이 바로 그것인데 감인 500개, 칠석 연꽃수염, 산수유 각1냥, 백질여 5냥, 복분자 2냥, 용골 5돈을 분말로 만들어 밀환해서 오자대로 만들어 공복에 蓮肉 끓인 물에 60알씩 복용하면 특효이다.

또 「파극환」이 있다. 얼굴빛이 창백하여 윤기가 없고, 심사가 슬퍼서 잘 울고, 맥이 공허한 것을 탈정 또는 탈신이라고 하는데 간장과 신장이 허약하므로 보약으로 보충하여야 하며, 원기와 양기를 강장 보기해야 정수나 신수 고갈이 안되는 것이다. 인체의 수액(수분)이나 혈액 또는 정액(내분비 홀몬등)이 결핍되거나 고갈되면 생명을 잃게 되거나 질병이 생긴다. 혈액부족, 혈행장애등이 생기며 뇌에서는 뇌빈혈, 뇌동맥 경화, 뇌혈전, 뇌출혈 등이 생겨서 뇌졸중 : (중풍)이 발병된다.

심장에서 혈액장애가 생기면 심장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등이 발병되어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혈액에 어혈(노폐물)이 생겨서 혈관내벽에 이상 변화가 생기면 동맥경화나 고혈압, 고지혈증(콜레스테롤)이 생겨서 혈관이 파열되거나 막혀서 사망하게 된다.

이때는 四物湯이나 八物湯을 복용하는것이 좋다.

파극환을 팔물탕에 복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추동계절은 補溫해야한다. 가을과 겨울은 우리 인체를 따뜻하게 하여야 한다. 사람은 온혈동물이므로 춥거나 한냉하면 신체나 말초의 기혈에 순환장애가 생겨 산소와 영양 기혈이 부족해서 세포나 신경조직등에 손상이 생기거나 괴사가 생겨서 마비되거나 염증이 생기게 된다. 손과 발가락 등에 동상이 생기거나 썩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버거씨증이 있고 수족냉증이 심해서 얼거나 진물이 나거나 시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다.

뼈속이나 근육등에 찬바람등이 불어오거나 스며들어서 따뜻한 곳만 찾거나 온수만 찾는 사람도 많다.가을과 겨울의 예방보약으로이럴때는「녹용대보탕」을 복용해야 한다.

원기나 온기가 부족하면 온몸에 한기나 냉기가 돌게된다. 한기나 냉기가 돌면 피도 차게 돌게되므로 한냉해지게 된다.

결과는 순환장애나 마비증세의 병증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한 온기를 유지키 위해 溫補藥이 필요하다. 그래서 겨울에는 야생동물의 장기나 혈액을 보약으로 먹는 것이 다.

동물의 장기(간, 쓸개 등)는 인체의 장기 조직의 질병 예방과 치료제로 효과적이다.

가을과 겨울은 불이 필요하나 물불에 조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체에도 물과 피가 있고, 기인화가 있는 것이다. ☐